

전남 김 신제품 '해풍 1호' 정식 품종 등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신제품 김 '해풍 1호'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품종 등록을 신청하여 29일 밝혔다."

'해풍 1호'는 지난 2010년 특허등록을 마치고, 2012년 수산물 품종관리센터에 품종 출원해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에 의해 동시 보호받는 국내 유일 품종 김이다. '해풍 1호'는 앞으로 20년간 재배·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해풍 1호'는 해남지역 김 양식장에서 발견

2010년 국내 최초로 개발

20년간 재배·판매 권리

보급후 생산량 38% 늘어

된 우량한 어미 업체(業體)를 새로운 방법으로 성숙시켜 씨앗을 만들어 육종했다. 업체의 성장이 빠른 다수확성이며, 다른 김 품종에 비해 생식능력도 뛰어나 갯병 피해의 조기 회복과 생산기간 연장 등이 탁월한 품종이다.

해남지원은 2011~2014년 전남 김 종자 배양업체 347곳에 종자 1만257g을 분양했으며, 업체들은 모두 2271억원의 생산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급률이 높은 해남군의 경우 보급 후 5년간 평균 생산량이 7만6000t으로 보급 전(5만5000t)보다 38%가 늘어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해남지원은 수출용 스펙 김으로 가공하기 좋은 무늬돌김 계통의 '해모돌 1호'와 '해풍 1호'보다 맛이 뛰어난 '해풍 2호'를 개발해 지난 1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품종 등록을 출원했다. 품종 등록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인근 원장은 "이번에 품종 등록한 '해풍 1호'는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로열티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갯병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 보급해 안정적인 김 생산과 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 향상을 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근 원장은 "이번에 품종 등록한 '해풍 1호'는 수입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으로, 로열티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갯병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 보급해 안정적인 김 생산과 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업인 소득 향상을 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황토 옷 갈아 입은 청산도 '슬로시티 답네'

콘크리트길 걷어내고 자연 친화 황토길 깔아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내 콘크리트 도로가 황토 옷으로 갈아입었다.

청산면이 최근 회색빛 콘크리트 일색의 도로를 자연친화적인 황토길로 만들어 청산도의 품격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사진>

청산면은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 등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콘크리트 포장 대신 슬로시티 청산도 이미지와 어울리는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다 한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천연 황토분말을 콘크리트 타설시 황토분말 보강제로 활용에 나섰다.

황토포장 방식은 콘크리트 타설시 천연 황토분말을 배합함으로써 황토길의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고 도로의 강도와 오랜 수명을 보장하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이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 m당 12~15kg의

천연 황토분말을 섞는 것만으로 황토포장의 느낌을 낼 수 있고 기존 황토 콘크리트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 훨씬 싸고 강도 또한 매우 우수하다. 청산면은 앞으로 주요 관광지 도로, 슬로길, 농로 등 신규 포장이나 기존 포장 덧씌우기 또한 황토길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길수 청산면장은 "청산도는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생생한 만큼 인위적 이미지의 회색빛 콘크리트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황토길 포장을 확대해 넓히고 여유,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섬으로 가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산도는 산, 바다, 하늘이 모두 푸르다 해 '청산(靑山)'이라 이름이 붙어 질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37만명이 다녀간 전 국민이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수부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선정

완도 신지 '명사갯길' 안전시설 등 정비

완도군 신지 '명사갯길'이 해양수산부 지정 '해안누리길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군이 지난 2011년 우리마을 녹색길 사업으로 조성한 '신지 명사갯길'은 경관이 수려하고 해양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보행 가능한 해안길이다. '명사갯길'은 신지면 강동 신지대교 휴게소를 시점으로 해 신지면 동고리까지 총 28km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을 위탁을 받은 (재)한국해양재단에서 지난 3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전국 9개 노선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결과 완도 '신지 명사갯길'이 1순위, 인천시 옹진군 '삼형제길'

이 2순위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지 명사갯길은 활성화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해안누리길 종합안내판, 물대 헬기장 낙석방지 시설, 해안가 등대 주변 폐초소, 주변 섬 해설판·안전시설 등을 정비하고, '청산도 슬로길'과 연계한 해안누리길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향후 도보 여행객들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현재 수립 중인 명사갯길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미개설 구간(13km)에 대해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전국 도보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안누리길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공공근로·지역공동체

하반기 일자리 사업

진도군 107명 선발

진도군이 7월 1일부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 5월 19~29일 읍·면사무소 등에서 공공근로사업 66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1명의 희망자를 신청받았다.

군은 올해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2015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원 선발기준에 따라 삼별초 공원사업 등 11개 분야 52명을 선발해 4개월 동안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형편이 어려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배정하기 위해 참여자 선발 시 재산상황, 부양가족,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이번 공공근로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주민으로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65세 미만은 26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시간당 임금은 5580원이다.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대한 상시적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진도 톳 말리기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 주민들이 청정해역에서 갯 뜯어 온 톳을 말리고 있다. 진도 톳 연간 생산량은 3300t(146억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30%다. 양식면적은 316여가에 555ha다.

/연합뉴스

해남군 신청사 현부지·인근에 신축

군청사 신축위원회 회의

주민 여론 등 평가 입지 확정

해남군 청사 신축 장소가 현 부지 및 인근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사 신축위원회 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민 설문조사와 7개 평가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A안으로 결정했다. A안(현 부지 및 인근)은 83점, B안(해남읍 외곽이전)은 60점을 얻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6498명을 조사해 현 부지 및 인근인 A안이 55%, 해남읍 외

곽이전인 B안이 45%로 나타났다. 해남읍에서는 59%, 면 지역은 52%가 A안을 선호했다.

군은 청사신축 부지가 확정된 만큼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에 따라 8월안에는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한 세부적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전남도 투자심사의뢰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시서 징구와 토지매입에 들어간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사부지가 선정된 만큼 부지매입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군

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신축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68년 지어져 올해로 47년 된 해남군 청사는 지난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 2005년부터 기금을 모아 오는 2019년까지 4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자를 합하면 450억원에 이르러 빚 없이 자체 재원으로 신축할 수 있다. 현재 333억원의 기금이 적립됐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은행, 보험, 증권	1400㎡
8층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 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 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